배우 박해수 "꿈꿔왔던 메피스토…맹수·지휘자 몸짓에서 영감"

'파우스트'로 5년만 연극 복귀…"죽을 정도로 떨려"
매력적인 악마 메피스토…"대사 음률에 꽂혀 접근"
"문화 힘 통한 선한 영향력…평양 공연 설 날 오길"

"퓨마 같은 맹수가 먹이를 노리고 배회하는 느낌을 내려고 했어요. 이런 동물의 움직임이나 세계 유명 지휘자들의 몸짓을 많이 찾아보며 영감을 받았죠."

장난기 가득한 표정에 춤추는 듯한 여유있는 몸짓이 익살스럽다. 그 뒤편엔 노학자 파우스트에게 달콤한 계약을 제안하며 차가운 눈빛을 번뜩이는 악마의 얼굴이 숨어있다. 연극 '파우스트'에서 매력적인 악마 메피스토로 열연 중인 배우 박해수는 "메피스토는 옛날부터 꿈꿔왔던 역할"이라고 말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수리남' 등을 통해 글로벌 스타로 떠오른 박해수가 5년여만에 연극 무대에 복귀했다. 2017년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 주연으로 인기를 끌며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지만, 사실 2007년 연극으로 데뷔해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배우다. 연극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 '갈매기', '맥베스', '프랑켄슈타인'과 음악극 '더 코러스-오이디푸스' 등에서 활약했다.

지난 6일 서울 강서구 LG아트센터 서울에서 만난 그는 "'파우스트' 대사의 음률이 매우 아름다운데, 그 점에 꽂혀서 접근했다"고 말했다.

"저는 신체 연기가 무대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언어도 전달을 위한 훌륭한 매개체이지만 몸짓이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죠."

지난달 31일 올린 첫 공연날을 떠올리면 "죽을 정도로 엄청나게 떨렸다"고 했다. '고향' 같은 연극 무대로 돌아와 편하지 않냐는 질문에 "항상 무대가 편한 적은 없다. 카메라 앞도 그렇고, 무서운 건 매한가지"라고 빙긋이 웃었다.

"대사만 틀리지 말자고 계속 되뇌었어요. 관객을 보면 더 떨릴까 봐 일부러 안 봤죠. 공연을 마치고 박수 쳐주는 관객들을 보니 그제야 (긴장이) 풀어지더라고요. 힘든 시기였을 땐 소극장에 관객 한 명만 있는 상태로 연기한 적도 있었는데, 객석을 가득 메우고 있는 관객을 보니 너무 감사했어요."

한동안 영화, 드라마에만 매진한 만큼 마음 한 편엔 걱정도 있었다. "무대에서 소리(발성)가 안 들릴까봐 걱정했는데, 연습하며 싹 사라졌다. 성량은 기본적으로 있더라"라고 너스레를 떨며 "(연기의) 섬세함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다짐하며 연습했다"고 말했다.

'파우스트' 대본을 처음 읽었을 땐 묘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200년 전 쓴 작품이지만 '사랑이든 쾌락이든 다 즐기고 행동하라'는 메피스토의 말은 지금 시대에 더 와닿는다. 무조건적인 악함이 아닌 악의 평범함을 고민한 까닭이다. "(과거와는 다른) 선악의 경계가 모호해진 면에 다들 공감하잖아요. 현실에 비춰 악의 시초에 대한 궁금증도 있었죠. 배우로서 메시지가 있는 작품을 하고 싶은 욕심도 있었는데, 때맞춰 이 작품이 왔어요."

가장 숙제였던 장면은 파우스트와의 첫 대면부터 계약을 하기 전까지였다. "원래 대본에선 대문호나 학자를 찾아가는 그 시절의 학생처럼 은밀하게 접근해요. 그런데 요즘의 현실적인 악이라면 어떨까 고민했어요. 내가 악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원하든 원치 않든 너의 선택에 따르겠다는 악마가 판치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악의 정령들과 단체로 자신있게 들어오게 수정했어요. 어려웠지만 이 신을 만들며 재밌었어요."

젊은 파우스트와의 동굴 신 등 길고 사유적인 대사가 많은 장면도 까다로웠다고 했다. "논리적이지 않고 사유로만 결합된 대사를 줄줄이 읊을 때 어려워요. 이를테면 머릿속에서 몇 단계를 뛰어넘거나 연상되는 그림이 휙휙 지나가는 대사인 거죠. 엄청나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했어요."

파우스트 역을 맡은 유인촌도 27년 전 메피스토를 연기했다. 후배에게 여러 조언을 해줄 법한데 그보다는 동료 배우로 먼저 존중해준다고 했다. "영향을 줄까 봐 조언보단 대사를 많이 맞춰주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끊임없는 에너지로 폭포수 같은 대사를 쏟아붓는데 처음엔 충격이었죠. 선생님의 노련함과 자유로움이 정말 멋있어요."

네 명의 주연을 비롯해 18명 모두 원캐스트다. "모든 배우의 열정이 대단하다"며 "원진아 배우에겐 끈기를, 박은석 배우에겐 에너지를 느낀다. 마흔살이 넘은 요즘엔 연기적으로 동료 배우들과의 관계성을 고민한다. (앙상블로) 열심히 뛰는 형, 누나들을 보며 연기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더욱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장르를 넘나들며 연기파 배우로 입지를 굳힌 그는 인지로를 얻은 만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도 내비쳤다. 이 작품을 진두지휘하는 양정웅 연출과 함께 평양에서 공연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단다.

"문화의 힘이 크다고 생각해요. 음악처럼 연극이나 영화, 드라마도 치유와 위로의 힘이 있죠. 평양의 극장에서 남자 배우로 서는 그날을 상상해봐요. 그런 시대가 오기까지 무대에서 오래도록 버티는 힘을 키우고 싶어요. 자유로운 생각과 깨끗한 영혼으로 쭉 무대에 서 있을게요."

미국인이 "아이X", '젠X"…외국서 '韓 비속어' 열풍

"한국어 전혀 사용하지 못하지만 한국의 비속어 익숙"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 '오징어게임' 등 K 콘텐츠의 인기가 올라가며 한국의 비속어도 유행할 기세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샤넷 톰슨은 요즘 일이 잘 안풀릴 때 자기도 모르게 "아이X" "젠X"이란 말을 내뱉는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어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지만 '더 글로리'를 보며 한국의 비속어에 익숙해진 것이다.

그 밖에도 '더 글로리'를 계기로 한국 드라마부터 한국으로의 여행까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톰슨은 더 많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위해 또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인 '비키'에 가입했다. 2025년에는 한국으로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톰슨은 "나는 미국인이지만 한국 드라마를 더 많이 본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한국 드라마의 인기 속에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달 27일 프랑스 파리 소재 공립 클로드 모네 고등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에 현지 고등학생 2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 식당에서 먹어 봤어요. 파리에 많이 있어요"부터 "순대 먹어 봤어요"까지 자유롭게 구사했다.

프랑스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열기가 뜨겁다. 지난 4년 동안 정규, 방과 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3배 늘었다. 당국은 곧 제2외국어 채택 학교 수가 일본어를 넘어설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프랑스 내 17개교에 그쳤던 한국어 수업은 지난해 60개교로 늘었다.

뉴시스

'영원한 디바' 현미, 밤안개 속으로 떠나 영면

원조 디바 고(故) 현미가 그의 노래 제목처럼 '밤안개' 속으로 떠나며 영면에 들었다.

9일 오후 9시10분 방송하는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 지난 4일 향년 85세로 갑작스럽게 떠난 현미의 마지막 이야기가 공개된다. 방송에서는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을 되돌아보고 '인간 현미'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현미는 60년대 대표곡 '밤안개'로 대중가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했다. 1957년 현시스터즈로 첫 무대에 오른 이후 1962년부터 '보고 싶은 얼굴', '떠날 때는 말없이' 등 발표하는 곡마다 대히트를 거두며 가요계 디바로 자리매김했다. 늘 화려하고 씩씩한 그녀였지만 알고 보면 어린시절 평양에서 두 동생과 생이별의 아픔을 겪어야 했고, 당대 천재 작곡가인 이봉조와 힘든 사랑도 겪어내야 했다.

80대의 나이에도 '내 걱정은 하지마' 신곡을 발표하고, 세상을 떠나기 전날까지 무대에 올랐던 현미의 갑작스러운 비보에 많은 이들은 충격에 빠졌다. 그녀의 마지막을 배웅하기 위해 장례식장에는 각계각층 많은 사람들의 조문 행렬이 이어졌다. 가수 쟈니리는 비통함을 전하며 "선배, 후배 동료 할 것 없이 현미라는 사람은 늘 웃어주는 사람이었다"면서 따뜻했던 고인의 생전 모습을 기억했다.

가수협회 대표인 이자연과 임희숙은 "전날만 해도 신나게 노래 부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냉정하게 떠나버렸다"며 "무대를 누구보다 사랑하던 선배가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고 편안히 쉬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털어놨다. 가수 남일해는 언제나 에너지 넘치고, 말하는 걸 좋아하던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블랙핑크 '셧다운' 뮤비 4억뷰 · 로제 'OTG' 안무영상 1억뷰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의 정규 2집 '본 핑크' 타이틀곡 '셧 다운(Shut Down)' 뮤직비디오와 멤버 로제의 솔로곡 '온 더 그라운드(On The Ground)' 안무 영상이 유튜브에서 각각 4억·1억뷰를 돌파했다.

9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셧 다운' 뮤직비디오는 전날 오전 7시 24분께 유튜브 조회수 4억 회를 넘어섰다. 공개 약 204일 만에 통산 17번째로 4억뷰 영상 대열에 합류하게 된 것이다.

로제 '온 더 그라운드' 안무 영상 또한 지난 7일 오후 10시21분께 유튜브 조회수 1억 회를 달성했다. 지난 2021년 3월 23일 공개된 지 약 2년여 만이다. 팀 통산 40번째 억대뷰 콘텐츠다.

블랙핑크는 최근 유튜브 조회수와 구독자 모두 가파른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팀과 솔로를 가리지 않고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유튜브에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자랑해왔다. 이번엔 지난달 31일 지수의 솔로 데뷔가 기폭제 역할을 했다.

실제 지난 7일 멤버 리사의 솔로곡 '라리사(LALISA)' 뮤직비디오와 '머니(MONEY)' 익스클루시브 퍼포먼스 비디오(Exclusive Performance Video)는 예상 시기를 훨씬 앞당겨 각각 6억, 8억 조회수를 돌파했었다. 블랙핑크 공식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8620만 이상이다.

한편 블랙핑크는 최근 약 150만 명을 동원하는 K팝 걸그룹 최대 규모 월드투어 'BLACKPINK WORLD TOUR [BORN PINK]'를 진행 중이다. 작년 7개 도시 14회차의 북미 공연과 7개 도시 10회차 유럽 투어를 성료했다.

현재 아시아에서 보다 많은 팬들과 만나고 있다.

지석진 · 원슈타인 · KCM, 섬 출격

MBC TV '안싸우면 다행이야'

유닛 그룹 M.O.M의 멤버 지석진, KCM, 원슈타인이 '내손내잡'(내 손으로 내가 잡는다)을 펼친다.

10일 오후 9시 방송되는 MBC TV 예능물 '안싸우면 다행이야' 118회에서는 '빽토커'로 넉살과 장예은이 함께한다.

M.O.M은 "우리는 가족 같은 사이"라며 앞으로 섬에서 함께할 1박 2일에 기대를 표한다. 도시 남자로 알려진 지석진이 두 동생을 소집해 섬에 간다.

원슈타인은 섬에서 발견하는 풍경 하나하나에 엉뚱한 반응을 보인다. 자연살이를 만화, 영화, 다큐멘터리로 배웠다는 그는 섬에서 써먹을 생각에 즐거워한다.

특히 그는 "내 스승은 베어그릴스"라고 말하며 독특한 자연 살이 비법들을 형들에게 전수한다.

그런가 하면 갯벌에서 발이 단단히 묶인 지석진 때문에 KCM과 원슈타인도 해루질은 뒷전에 두고 형 구하기에 시간과 체력을 쓰게 된다.

손 많이 가는 형 지석진과 함께하는 M.O.M의 해루질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호기심이 증폭된다.